나쁜 것에도 좋은 것에도 착을 두지 마세요!

☞19면에서 계속

그러고 간 지 삼일 만에 그만 그 사람도 죽고 소도 죽었더랍니다. 그러니깐 양반의 집에서는 야단이 났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소도 죽고 그 종도 죽고. 더 기막힌 건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나자 송아지 두 마리조차 다 죽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어느 집이 참, 가난한 집이지마는 남의 노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으로 인도를 해서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 태어나서 그 스님의 불씨가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인지 다시금 스님네 노릇을 하면서 도를 닦았답니다.

그러니 도를 닦을 때에 어떻게 닦았겠습니까? 산중에서 도를 닦을 때는 새 한 마리 빼놓지 않고 곡경을 당하게 한,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스스로 마음 속에서 나와,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다짐하고 중노릇을 잘해서 앞으로 모든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원이 뚜렷하게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여자를 봐도 나무토막 같아, 그렇게 한 번 겪어서. 그 얘길 다 들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짚세기에다가 떡하니 새끼 오락지를 매되 방울을 달고, 어디든지 산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휘휘 젓고선 다녔단 말입니다. 팔자 걸음으로 슬슬 떼면서,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벌레 하나하나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친구를 만들었고, 모두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만들었다는 뜻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몸 하나하나에, 즉 말하자면 화생(化生)이라든가, 태생(胎生)이라든가 또는 습생(濕生)이라든가 난생(卵生)이라든가 이러한 사생(四生)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사생이 다 들어 있다는 그 묘한 법을 어떻게 일러드리나 하는 생각에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그 사생의 인연은 어떻게 지어진 인연일까? 자기가 수없이 겪어 나오면서 살아나가던 습으로 인해서 알로 낳고 태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또는 화(化)해서 낳고 하는 그 인연들을 자기가 몽땅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내가 먹었다, 악한 것을 하나 살생을 해서 먹었다 합시다. 벌 하나라도, 벌도 여러 가지지만 독이 들은 벌이라고 할 때는 벌 하나 먹어서, 내가 주장자가 완벽하게 서지 않은 빈 집이라면 독 있는 벌 하나를, 생선 하나를 잘못 먹어도 그 생선 속에 들은 사생이 다 내 인연이 된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독이 들은 물체 하나를 먹으면 그 물체 속에 사생이 우리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씨는 악의 씨를 낳고 선의 씨는 선의 씨를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종류의 습을 가진 것을 먹게 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생이, 전부 수십억 마리에 관한 건이 전부 악으로 이루어지고, 악으로 낳게 되고, 악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끝간 데 없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인연을 만나면 그 악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생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남의 악한 종류를, 독을 먹는다면 그 모두가 독의 물이 든단 얘깁니다. 모두가 흡수가 되는 거야. 기능이 마비가 되고 무슨 독한 약을 먹으면 그렇듯이, 내가 악한 것을 먹으면 그 악한 피가 흘러서 내 피가 오염이 되니 그 생명들이 전부 마음 씀씀이를 악하게 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뿐인가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만다면 별 문제가 아니죠. 한생각으로 사생의 모든 모습을 바꿔가지고 모습 모습이 다 다른 수십억 마리의, 모습도 다르지만 마음도 다 다른 그것

한 의식 속에서
수천수만 가지가 나고드니
그것을 조절해서
전부
그 자리에 놔라!

이 한꺼번에 지금 오장육부에 다 있으니 그게 오염이 된다면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오염된 악의 씨는 마음 하나에 의해서 수천수만으로 금세 늘어갈 수가 있는 씨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염된 그 씨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을 해치는 겁니다.

모습으로 나오는 것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데서 즉, 영령(英靈)의 씨가, 악한 씨가 보이지 않는 데 수없이 피를 타고 돌면서 또는 전파를 타고 돌면서 나가서는 어디에고 다 퍼집니다. 사람이 숨 들이쉬고 내쉬는 데도 나고 듭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 말로 하리까? 시급한 문제는 우리 마음으로서 어떻게 한생각을 잘해서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버리지 않고 친구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체가 없는 마음은 체가 없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식(識)이 식을 먹고 식에게 식이 먹힙니다.

그러면 식과 생명, 영원한 나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의식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 나는 그 의식 자체가 바로 한 의식이란 얘깁니다. "한 의식 속에 수천수만 가지가 나고 드니 그것을 조절해서 전부 그 자리에 놔라." 이 소리를 항상 하고 있죠? 그러면 때에 따라서 모든 친구들이 내 몸속에 들은 친구와 더불어 같이 돌이 아니게,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들이 나 아님이 없을 것이요, 마음들이 나 아님이 없을 것이요, 아픔이 나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게 동시에 어떠한 일을 한다면,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나도 이걸 들어야만 나라가 융성하고 또 편안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팽창될 때 나쁘게 될 때는 좋게 조절을 하고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평등하게, 즉 말하자면 위로 너무 솟아오르는 건 탁 쳐서 내리고 또 너무 내려가는 건 위로 올리면서, 평등하게 두면서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런 공헌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다함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도 싫다 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아마 마다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엔 때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친구라면 어떠한 분야의 어떠한 용도에서는 두루두루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자가발전소에서 전력이 나오는데 용도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또 공중에서 쓰는 건 공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용도대로, 즉 말하자면 발전소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굴러가면서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나가서 용도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몸뚱이가 한 몸뚱이가 아닙니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했듯이,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 상구보리 하면 하화중생이듯이. 내 몸속에 지금 수십억 마리의 중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하화중생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몸뚱이 하나로 비유해서 세상에 탁 나왔을 때는 그 많은 중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선장님들은 배를 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모든 배 밑에는 수레바퀴가 달려서 지금 팔방으로 고정됨이 없이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뚱이가 배고, 발은 배 밑의 바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 평발이지.

여러분은 '나 아닌 나'가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습 없는 나'가 그렇게 많아서 나고 든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모습 없는, 바로 타인의 모습 없는 세균이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하나가 돼버려야 탄로가 나지 않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둘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 몸뚱이를 건강하게 끌고다닐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 타인이 하나 들어왔으니깐요. 그러니 뱃속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꼭 주인공에서 나오는 건 주인공에다 맡겨놓으면 주인공에서 어떤 세균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다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보이지 않게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선 보이는 대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역력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합니까?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가지고 있고 또 광대무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자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에 탈이 생겨서

우리 마음으로서
한생각을 잘해서
하다못해 애벌레 하나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버리지 않고
친구로 만들 수 있어야!

말이 잘 안 나온다면 목을 자기가 스스로 수술을 하고 또 간이나 심장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체는 타인도, 그 타인도 주인공은 둘이 아니라서 내 전화통과 그 전화통과 벨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꼭 안다, 저 사람은 참 안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 언젠가는 건져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뭐, 한순간입니다. 이 도리가 그렇게 무서운 도립니다. 여러분이 욕심 착, 이런 걸로 벌어지게 해서 남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나 착이나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디서든지 샘이 나올 듯하다가도 한울에서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한울이라면 한마음 말입니다. 개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한마음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마음이 돼야 한마음의 열쇠가 나옵니다.

만약에 한마음이 되지도 못한 사람이 열쇠를 받았다면 그 재주를 이용해서 '에이! 너 맛 좀 봐라!' 대번에 이러한 마음이 나오니, 자동적으로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자신에게 열쇠를 맡깁니까? 자신이 아비고 지금 현재 자신이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아들한테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둘이 아닐 때에 비로소 열쇠는 받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생각에 그러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은 '너 맛 좀 봐라!' 하고 망하게 만들면 아주 즉석에서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는 얘깁니다. 고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인가 또 걸립니다. 나는 놈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톡톡히 당하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그러한 데서 마음 하나하나를 낼 때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깨우쳐 보지 않는다면 내 몸과 둘이 아님을 몰라요. 또 내 자리 네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내 아픔 네 아픔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니 아비 내 아비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니 자식 내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참 간절하게 자식이 없어서 우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없어서 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런 벌레들도 짐승들도, 저런 섬 같은 데 한번 마음의 눈으로 스르르 좀 봐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좀 여유있게. 쫓기고 쫓고, 피를 내고 울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쫓기고 쫓다가 먹히고, 부모는 자식이 없어져서 울고, 자식은 부모가 없어져서 우는 그 꼴을 둥글리면서 보십시오.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벌레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개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집에 태어났다가 저 집에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합니다. 이렇게 둥글리면서 끝간 데 없이, 종점이 따로 없고 시발점이 따로 없이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모습을 자꾸자꾸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모두가, 애벌레든 짐승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애든 어른이든, 남의 집의 아버지든 남의 집의 할아버지든 남의 집의 자식이든, 어찌 내 자식이 아니며 내 부모가 아니며 어찌 그것이 내 생명이 아니며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호에 이어서)

※위 법문은 1987년 1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 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관리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여,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사전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 부러진 뼈와 수술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가능 합니다.
- 따주기로 사주와 무관하게 숙명과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 간단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이웃 건강관리(병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 학생지도 및 신도 포교에 최적입니다.
- 따주기 사회봉사로 많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위급시 비상 처치법으로 활용합니다.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특 전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한번 수강으로 이론 · 실습 모두 완료함(비법 전수)
- 교재 및 따주기 도구 지급

강좌일 (선착순 각 20명)
- 광주교육장 : 2007. 12. 1(토) ~ 2(일)
- 부산교육장 : 2007. 12. 8(토) ~ 9(일)
- 대구교육장 : 2007. 12. 15(토) ~ 16(일)
- 대전교육장 : 2007. 12. 22(토) ~ 23(일)

☞ 강좌 문의 : 041)944-2237 (010-3234-2237)
(문의시 세부 강좌 프로그램 보내드림)

전통전통따주기연구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5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 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7년 11월 30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